

북스

Books

무엇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가

루시퍼 이펙트 필립 짐바르도 지음

2004년 5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들이 자행한 포로 학대사건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다.

민간인 수감자의 목에 줄을 매달아 짐승처럼 끌고 다니고, 입마개를 하지않은 사나운 개를 풀어놓아 수감자를 공포에 떨게하는 사진, 살아있는 수감자들을 딱시루처럼 쌓아놓은 충격적인 영상, 포획물을 곁에 둔 듯 사냥꾼처럼 포즈를 취한 미군병사들.

여군까지 가담한 미군들의 이라크 포로학대는 인간이 선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는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통해 이같은 만행에 진저리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도발적인 결론을 내린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서 인격적인 결함, 비정상적인 성장과정 등을 찾는 게 보통이지만 저자는 '상황과 시스템'에 주목한다.

그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특정한 상황과 시스템이 있으며, 실험을 통해 이것의 영향력을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라고 불렀다. 그는 35년전에 실시한 실험에서 '평범한' 시민이었던 미군들이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악함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참가자들은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인성평가에서 피실험자들은 모두 평균적인 성향으로 평가된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각자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은 뒤 놀랍게도 실제 교도소 사람들 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다. 교도관은 수감자들을 가혹적으로 대했고 학대 수법도 교활하고 창의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수감자들 역시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탈주계획을 모의하는 바람에 실험은 1주일도 안돼 중단됐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 얻어진 결론은 나쁜 시스템, 상황, 동료 교도관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행동하지 않는 악'이라는 환경이 인성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 사건에도 지도력 부재, 열악한 환경 등 미군의 포로 학대를 가능하게 한 '악한 시스템'이 작용했다.

미군당국은 포로학대 행위가 몇몇 나쁜 병사들의 일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저자는 직무를 유기한 상급자,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상황과 함께 학대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속하도록 작용한 복잡한 교도소의 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상황과 시스템이라는 외부적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저자는 '영웅적 행위의 평범성'을 주목하라고 충고한다.

동료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부라이브 교도소의 실상을 폭로한 조 다비, 2차대전 당시 자신과 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살린 영웅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누구나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주목해야할 것은 악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한다.

〈웅진지식하우스·2만8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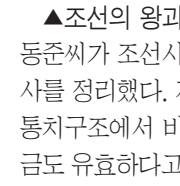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내면 심리는 부적절한 특정 상황이나 시스템에 노출될 경우 평범한 사람도 악인으로 변모시킨다.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포로학대 장면.

새책



▲스무색깔 스무누낌=대구 매일신문 박운석 스포츠생활부장이 쓴 경상도 여행 가이드. 석간 주색, 하엽색, 치색, 설백색 등 20가지 색깔을 주제로 경상도의 가볼만 한 곳 20곳을 소개하고 있다. 답사, 생태여행, 황홀경, 트레킹, 삶을 따라 등 5개 대주제로 묶었다. 〈상상나무·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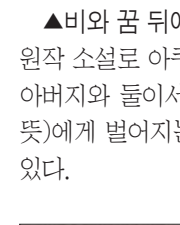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기자 출신 정치학자 신동준씨가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 사이에 지속되는 협력과 견제의 역사를 정리했다. 저자는 조선 패왕이 '군악신강(君弱臣強)'의 왜곡된 통치구조에서 비롯됐으며 봉당정치 폐단이 낳은 조선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다. 〈살림·1만8천원〉



▲커스터머 인사이트=디지털 혁명과 마케팅의 합수 관계를 설명한 책. 디지털 소비자의 참여 지향적, 관계 지향적, 맞춤형 지향적 성향을 분석했다.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고드는 '커스터머 인사이트'가 전략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1만원〉



▲밥-정갈별의 밥시 이야기=나주 출신 정갈별 시인이 밥을 주제로 한 59편의 시를 한데 모아 짧은 감상을 덧붙였다. 저자는 "시인에게 잘 먹는다는 것은 언어를 재료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좋은 시를 쓴다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마음의숲·8천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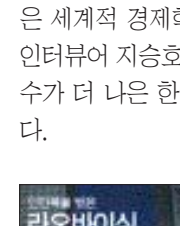
▲비와 꿈 뒤에=일본 아사히TV의 인기 드라마 '비와 꿈 뒤에'의 원작 소설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가 썼다. 아버지와 둘이서만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 아메('비'라는 뜻)에게 벌어지는 일을 통해 절절한 가족애와 사랑, 슬픔을 그리고 있다. 〈소담출판사·1만원〉



▲코코스=순천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소설가 박창효의 네 번째 소설집. 미발표 중편 '사막의 집'과 단편 4편이 실려 있다. 40을 넘긴 주인공들이 '욕망'과 '패하',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와의 불편한 조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현대문학·9천500원〉



▲백범이룩=창원대 도진순 사학과 교수가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의 말년 행적과 말, 글을 모아 한데 묶었다. 국민도서 '백범일지'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1945년 9월에서 1949년 암살 전까지 백범의 모든 행적을 신문과 잡지, 방송 등에서 찾아냈다. 〈돌베개·1만3천원〉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한다='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주목받은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씨가 만났다.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장교수가 더 나은 한국인들의 삶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시대의창·1만3천500원〉



▲인민복을 벗은 라오바이싱=대구 매일신문 서명수 기자가 지난 2005~2006년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연구소에 있으면서 접한 중국 인민들의 실상을 책으로 엮었다. 환골탈태와 변화무쌍하는 중국 서민(라오바이싱)의 모습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9개의 주제에 담겨 있다. 〈아트레·1만5천원〉

정찬주씨 역사 소설

'하늘의 도' 3권 출간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산은 산물은 물의 보성 출신 작가 정찬주씨가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역사소설 '하늘의 도'(전 3권)를 출간했다.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세조에서 중종까지의 역사에서 왕도정치를 주창했던 청류사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대 사화(무오사화·갑자사화·기묘사화)를 중심으로 군주와 백성, 왕권과 신권, 훈구파와 사림파의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 및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소설가 최인호는 "요즘처럼 정치와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하늘의 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준엄한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각 권 1만원〉

음식과 성... 그리고 삼각관계

조경란씨 6년만에 장편소설 '혀' 출간

소설가 조경란(사진)이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문학과지성사) 후 6년 만에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혀'는 13년차 요리사 정지원을 둘러싼 사랑 이야기다. 소설은 지원이 7년간 동거했던 건축가 석주를 전직 모델 세연에게 빼앗기고, 4년전 요리교실을 차리느라 그만뒀던 옛 직장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삼각관계가 소설의 전부는 아니다. 작가는 등단 때부터 꼭 써보고 싶었던 '혀'를 풀기라도 하듯, 꿈같은 취재로 섬세해진 요리 이야기를 쏟아낸다. 푸아그라나 캐비아, 송로버섯 요리의 화려한 레시피가 등장하는 작품은 애정소설이라기 보다 요리소설에 가깝다.

문학평론가 김화영씨는 "혀"는 요리사의 소설인 동시에 그의 관능적 사랑의 이야기다. 둘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 '혀'는 요리사의 사랑의 소설인 동시에 증오의 소설이다. 이 둘 역시 같은 욕망의 뿌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지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적의 정사 장면에서 "자주처럼 짜글짜글한 음식"과 "포도주에 절인 복숭아 같이 붉은 빛이 도는 그어 엉덩이"를 흠뻑 본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사랑, 이것은 여자와 남자에 관한 확장된 개념일지도 모른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 색스에 몰입해 있는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저들도 틀림없이 미식가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지난겨울, 미담이 문들 사이로 한석주와 이세연이 엮은 후부터. 그를 위해서 요리할 때면은,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허기가 느껴지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다."

사람이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한 지원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혀를 녹여버릴 만큼 맛있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

감정 또한 음식으로 표현된다. 지원에게 있어 "고독은 바질"이며, "기쁨은 사프란"이고, "슬픔은 먼데까지 향이 퍼지는 가슬가슬한 오이"다. 깊이 있고 섬세한 문체를 선보였던 작가의 전작들과 달리, 탄탄한 구성과 빠른 전개는 스토리가 작품 속으로 몰입하게 한다. 〈문학동네·1만1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흥행은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02-544-0600

1관 세븐 데이즈 (184)	최고급관
2관 식객 (디지털/124)/베오울프 (디지털/154)	
3관 색, 계 (184)	
4관 리비아 로즈 (124)	
5관 스카우트 (124)/ 베오울프 (154)	
6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4)/이브닝 (154)	
7관 식객 (124)	
8관 골든 에이지 (124)	
9관 쏘우 4 (184)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골든에이지 (124)	
2관 이브닝 (154)	
3관 스카우트 (124)	
4관 궁녀 (184)/바르게살자 (154)	
5관 식객 (124)	
6관 킹덤 (184)	
7관 베오울프 (154)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음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원도시영영화시영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화남점 (무역회관앞편)

1관 리비아로즈 (124)	
2관 로스타이언즈 (154)/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4)	
3관 베오울프 (154)/이브닝 (154)	
4관 베오울프 (154)	
5관 스카우트 (124)	
6관 색, 계 (184)	
7관 세븐데이즈 (184)	
8관 쏘우 4 (184)	
9관 골든에이지 (124)	
10관 식객 (124)	

* 오늘 최대 주차장 * 예매할인이 상영합니다 1588-7941
* 상무점 전용 팝콘 (11월 21일~22일) * 화남점 전용 팝콘 (11월 21일~22일) * 연

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c.com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스카우트 (124) / 색, 계 (184)	
2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4)	
3관 쏘우 4 (184)	
4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4) / 세븐 데이즈 (184)	
5관 골든 에이지 (124)	
6관 베오울프 (154)	
7관 식객 (124)	

*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사 사무(오전9시~오후9시)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스카우트 (124)	
2관 바르게 살자 (154)	
3관 베오울프 (154)	
4관 쏘우 4 (184)	
5관 골든에이지 (124)	
6관 식객 (124)	
7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4)	
8관 색, 계 (184)	
9관 세븐데이즈 (184)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팝콘스 체험만을 위한 전용휴구 마련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편의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세로문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식객 (124)	
2관 세븐데이즈 (184)	
3관 색, 계 (184)	
4관 쏘우 4 (184)	
5관 스카우트 (124) / 세븐데이즈 (184)	
6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4) / 색, 계 (184)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